불어의 억양

이 정 원(부산외대 불어과)

1. 머리말

운율을 구성하고 있는 두가지 기본요소를 분석해 보면, 첫째, 기호소의 구분이나 낱말군 분리의 지표로 사용되는 강세법(l'accentuation)이 있고, 둘째, 하나의 문장 또는 한단락내의 여러개의 문장들 속에서 나타나는 리듬군들의 상호연관관계를 구성하는 억양(l'intonation)이 있다.

불어는 영어와는 달리 변별적 기능을 갖는 강세패턴이 없으므로 본연구에서는 억양에 관한 것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억양소 또는 억양패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억양단위는 리듬군과 일치된다. 불어에서는 이러한 억양으로 표현되는 소리고저의 변화가 갖는 중요한 기능이 발화전체와 관련을 가지며, 억양의 다양한 측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화자들간의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언어기호로서의 억양을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면, 억양표현의 실체는 멜로디가 되고, 억양의 형태는 여러가지 의미단위를 나타내는 곡선과 높낮이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억양은 보편 유연적 언어기호인 동시에 각언어에 고유한 언어기호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한편으로는 구조가 완전히 서로다른 두개의 언어(예를 들어, 국어와 불어)를 비교 했을 때 하나의 발화체에 걸쳐 나타나는 억양형태가 동일한 곡선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이 국어로 말을 할때 우리가 쉽게 지각할 수 있는 "억양이 다르다"하는 인지는 각언어마다 고유의 억양패턴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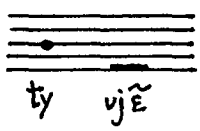
2. 억양의 언어학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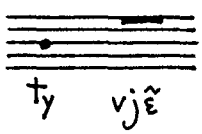
억양이 다양한 언어학적 기능(문법적, 화용론적, 감정과 태도 표현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언어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있다.

2.1. 음운론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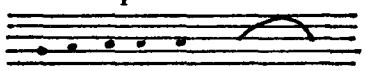
불어에서는 억양의 음운론적 기능이 문법적으로 무표적인 문장유형의 대립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두개의 음소대립에서와 마찬가지로 두개의 서로다른 억양패턴은 동일한 발화체의 의미내용의 변화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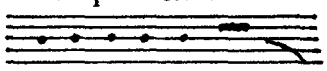
예 1) 형태소 대체 기능

a) Tu viens. 

b) Tu vie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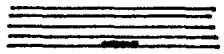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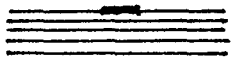
예 2) 통사 대체 기능

a) Il ne fallait pas ven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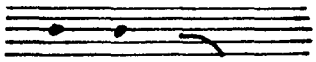
b) Il ne fallait pas ven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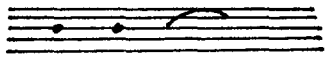
예 3) 의미 대체 기능

a) 의미의 추가 : Je vais bientôt partir.

-- Quand ? 
-- Mardi.
-- Quand ? 

b) 의미의 변화 :

C'est charmant.
(= je trouve que c'est charmand) 

C'est charmant !
(= je suis très contrariée) 

이러한 대립은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째, 단언문인 경우 상승-하강조의 억양을 갖고 Vous ne dites rien. (↗↘) 은,
둘째, 완전의문문인 상승조의 억양 Vous ne dites rien ? (↗)과
세째, 명령을 나타내는 거친하강조의 억양 Vous ne dites rien ! (↘↘) 에 대립된다.
그러나 위와같은 모든 음운론적 억양패턴들은 통사론이나 발화양상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야 한다. 즉, 억양은 음성학과 음운론 뿐만 아니라 문장론, 의미론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2.2. 경계획정의 기능

억양은 강세법과 병행되어 경계획정의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잉여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한 반면에 억양은 애매한 이중성을 구별해 낼 수 있게 하기도 한다. 그 일례로, 부사적 기능을 갖는 bien 은 다음 문장 c'est bien — ce que vous dites... 에서는 두개의 절을 이끄는 평조의 억양으로 나타나는 반면, 형용사적 기능을 갖는 bien 은 다음 문장 c'est bien ↗ce que vous dites... 또는 c'est bien ↘ce que vous dites... 에서와 같이 상승조나 하강조의 억양으로 나타난다.

2.3. 문장 구조화의 기능

억양은 상승곡선과 하강곡선 두가지 형태로 축약하여 나타낼 수 있는 문장 조직화의 기능을 갖는다.

예 4) a) 무강세 + 강세 b) 무강세 + 강세

Il est parti Il est parti

이와같이 고립된 상태에서 의미분류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예 4)의 첫번째 형태는 문장이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고, 두번째의 경우는 문장의 끝맺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문장의 양상에 따라 이러한 구조화의 곡선이 달라질 수가 있다. 즉, 억양은 발화체 내용의 주제(thème)와 설명(propos)에 의존하게 되는데, 만약 설명(새로운 사실)이 주제(논의가 되고 있는 사실)에 앞서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곡선을 얻을 수 있다.

예 5) a) 평서문 : Il est arrivé, votre ami, tout à l'heure.

b) 의문문 : Il est arrivé, votre ami, tout à l'heu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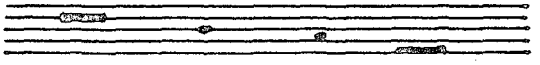
그러나 만약 주제가 설명에 앞서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곡선의 구조화를 얻을 수 있다.

예 6) a) 평서문 : Votre ami, tout à l'heure, il est arriv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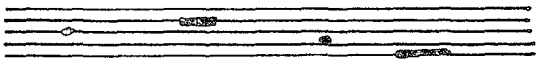
b) 의문문 : Votre ami, tout à l'heure, il est arrivé?

억양은 또한 형태통사적 기능을 갖을 수 있는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 7) a) Jean lève son verre.



b) J'enlève son verre.



예 8) a) Hélène Michel est là ?

b) Hélène, Michel est là ?

3. 억양의 음성학적, 음운론적 묘사

3.1. 음성학적 묘사

억양의 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양의 매개변수이다. 억양의 매개변수는
첫째, 선율곡선의 형태와
둘째, 그 곡선이 나타내는 높이의 계층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표현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했는데 1800년대의 Passy는 악보를 통해 억양묘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말소리를 표현키 위한 악보상의 억양묘사는 노래흉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학적 묘사에 있어서 악보적기는 여전히 쓰이고 있는 편이다. 반면에 Bolinger 같은 음성학자는 다음의 예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발화체 자체를 억양곡선위에 배열함으로써 억양운동을 흉내내었다.

예 9) Is thing ong? some w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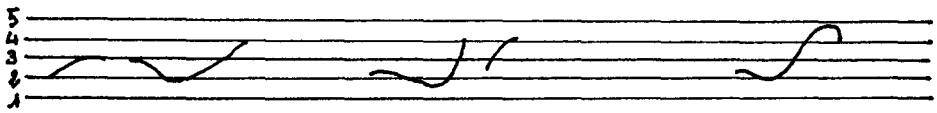
또는

Is thing ong? some wr

억양표현에 있어서 Passy는 말소리 높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고 Pike (1945)는 악보와 비슷하게 5선을 그려 처음으로 억양계층의 사용을 위한 개념을 정립시켰다. 프랑스학자들도 이모델을 불어에 적용하여 다섯 단계의 억양계층 체계를 만들었다.

불어에서는 계층 2를 기초음으로 본다. 계층 2는 우리의 귀에 익숙한 음성의 평균점을 지칭한다. 계층 2는 불어에서 주저함을 나타낼 때 발화하는 "euh" 소리높이에 해당하며, 무강세 음절의 평균 높이에 해당한다. 성별, 나이, 개인에 따라 계층 2의 기본음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층 2를 기준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의미지표점을 선택하게 된다. 지속의 의미 = 2-3; 끝맺음을 나타내는 의미 = 2-1; 완전의문문을 나타낼 경우 (의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2-4; 명령조 = 4-1; 감탄의 의미인 경우에는 계층 5까지 이어지는 곡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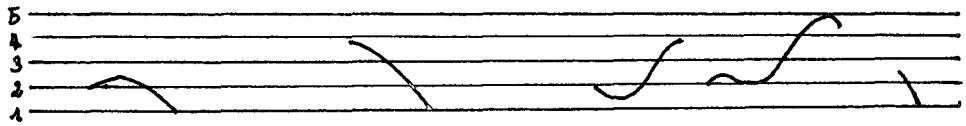
예 10)



a) Je pense qu'il faut partir... b) Il est là ? Et Jean ? c) Il est là ?!

지속됨을 표현 의문문 감탄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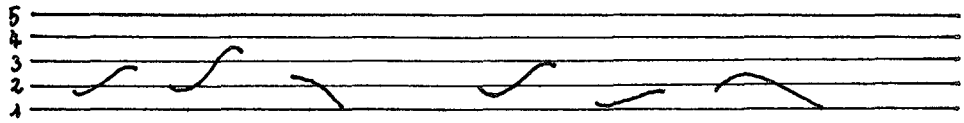
예 11)



a) ... à cinq heure. b) Vous sortez ! c) Ce n'est rien, c'est du vent, quoi!

끝뱃음 명령문 감탄문

예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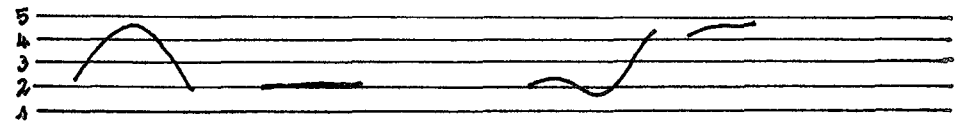


a) Il arrive à Orly, à cinq heure. b) Demain, s'il pleut, je reste à la maison.

단언문(주제 + 설명) 삽입절이 있는 경우

삽입절은 또한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끝부분이 완전히 낮거나 높게도 나타날 수 있다.

예 13)



a) Bien le bonjour ! Monsieur. b) Vous venez, Albert ?

부름을 나타내는 표현 + 삽입절 의문문 + 삽입절

3.2. 음운론적 묘사

억양을 포함한 운율적 요소들은 오랫동안 음운론 연구에서 도외시 되어 왔다. 그러나 점차로 음성학자들이 연구묘사해 놓은 모델을 토대로 음운학자들도 억양패턴의 모델을 음운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불어에 있어서도 Delattre (1966, 1969) 와 Faure (1970) 들이 음운론적 관점에서 억양을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Rossi (1977) 는 억양이 언어의 제 3의 분절이라고 까지 제안하였다. 그러나 Hagège (1978) 는 억양소가 음소처럼 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Rossi 의 제 3분절론을 거부하였다. 다시 말하면, 억양의 단위들은 음소들 처럼 변별적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태소와 같이 의미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미 1933년에 Bloomfield, 1945년에는 Pike 등의 연구에서 발표된 바 있다.

북아메리카 언어학자들은 음성단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분절음이라는 낱말을 사용하는 반면 억양단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초분절음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음소의 분절적 특징에 비하여 초분절음의 지속성에 관한 측면은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지 못하다.

불어에서 예를 들어 [b], [p] 가 제대로 발음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 Une bonne bière " 와 " Une bonne pierre" 의 차이를 구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하나의 동일한 발화체를 놓고 그것이 과연 의심, 의문, 아이러니 중 어느것을 나타내는 것인 지 또는 그세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음운론에서는 억양을 언어연구의 부차적 성질로 간주하고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불어의 억양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발간 예정인 논문, 국어와 불어의 억양 비교연구를 차후에 참고하기 바란다. 끝으로 불어교육을 위한 억양패턴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 14) 단언문,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 = 상승조-하강조

a) Je m'appelle June. (2-3-1)　　b) Est-ce que vous allez bien?(2-4-2)

예 15) 명령문 = 급격한 하강조

Viens ! (4-1)

예 16) 의문사가 포함되지 않은 의문문 = 상승조

Tu viens ? (2-4)

<참고문헌>

Callamand, M. (1973), *L'intonation expressive*, B.E.L.C., Hachette-Larousse.

Léon, M. (1964), *Exercices systématiques de prononciation française*, Paris, Hachette-Larousse.

Léon, P. (1992), *Phonétisme et prononciations du français*, Paris, Nathan.

MacCarthy, P. (1975), *The Pronunciation of Frenc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Tranel, B. (1987), *The sounds of French :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